

동계올림픽 홍보 및 국제우호교류
태국 치앙라이 방문 귀국보고서



강릉시의회

강릉시 국제우호교류도시 치앙라이 동계올림픽 홍보 방문 귀국보고서

1. 방문개요

가. 목적

- 1) 국제우호교류도시인 태국 치앙라이시를 방문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개최도시 강릉을 치앙라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홍보
- 2) 치앙라이의회와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 도시와 의회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
- 3) 국제관광도시 치앙라이의 관광상품 개발 현황 및 재래시장 운영 상황 등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시 관광문화 발전방향 검토

나. 견학기간

- 2017. 11. 1.(수) ~ 11. 6.(월) / 4박 6일

다. 방문국가

- 태국(치앙라이, 치앙마이)

라. 대상인원 : 10명(강릉시의회 의원 6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

구분	소속	성명	성별	비 고
1	강릉시의회 의원	허병관	남	방문단장
2	강릉시의회 의원	최선근	남	
3	강릉시의회 의원	조대영	남	
4	강릉시의회 의원	배용주	남	
5	강릉시의회 의원	김남형	남	
6	강릉시의회 의원	김복자	여	
7	강릉시 의회사무국 직원	박상준	남	
8	강릉시 의회사무국 직원	박봉동	남	
9	강릉시 의회사무국 직원	최승현	남	
10	강릉시 의회사무국 직원	황보민영	여	

2. 주요 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1일차 11.1.(수)	□ 강릉 → 인천국제공항 → 치앙마이	
2일차 11.2.(목)	□ 치앙마이 → 차앙라이 이동 ○ 치앙라이 공식 간담회 - 양도시 우호교류 및 발전 방향 모색 -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개최도시 강릉 홍보 □ 미얀마 입경 타킬렉 국경시장 견학 - 중앙시장 및 월화거리 비교 체험 □ 차앙라이 야시장 견학 - 노상주점, 노점상, 푸드트럭 운영 및 관리방법 견학	
3일차 11.3.(금)	□ 치앙마이 백색사원 방문 및 동계올림픽 홍보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소개 및 홍보물 배포	
4일차 11.4.(토)	□ 치앙마이 왓 체디루앙 방문 및 동계올림픽 홍보 → 태국 3대축제 '라이끄라통' 체험 및 사례수집 -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주민들과 상생 사례 수집	
5일차 11.5.(일)	□ 치앙마이 온천개발단지 방문 및 전통 종이우산 수공예단 지 견학 - 동계올림픽 홍보 및 단오거리 및 예술창작인촌 비교 견학	
6일차 11.6.(월)	□ 치앙마이 → 인천국제공항 → 강릉	

3. 방문국 태국 소개

가. 국가의 성립

- 1)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이다. 19세기에 유럽 열강의 압박 속에서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함께 근대화 실행과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을 이용함으로써 식민지화의 위기를 벗어났다. 1932년 입헌군주국으로 발족하였고, 1939년 국호를 시암(Siam)에서 타이로 변경하였다.
- 2) 면적은 약 513,120km², 인구는 약 6,800만 명 이상이다.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나. 강릉시 국제우호도시 치앙라이

- 1) 방콕에서 북쪽으로 758km, 치앙마이에서 197km 북쪽에 있는 치앙라이는 북부지역 제2의 도시이다. 콕강(Kok River)을 끼고 발달된 이 도시는 1262년 멥라이 왕이 건설하였다. 1296년 치앙마일로 도읍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란나왕국의 도읍지였다.
- 2) 1328년 멥라이 왕의 손자인 센푸왕이 치앙산에 도읍을 정하고 치앙산 왕국을 세우자 치앙산 왕국과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한때 치앙라이는 치앙산 왕국의 남쪽을 지켜주는 요새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1556년 버마의 침공으로 란나 왕국이 멸망하자 200여 년 동안 미얀마의 지배를 받았다. 치앙마일로 도읍이 옮겨간 이후에도 치앙라이는 북부 산악지대의 도시들을 다스리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주변 지역의 78%가 산으로 이루어진 관광자원이다.



4. 주요 활동 내용

가. 치앙라이시 공식 간담회

○ 태국 북부에 위치한 치앙라이는 북부지역 제2의 도시이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 제2의 도시인 치앙마이를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릉시 우호교류도시인 치앙라이는 그 진가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이다.

이런 치앙라이 시의회와 공식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치앙라이시 의원들에게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빙상경기 개최도시인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치앙라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을 홍보하고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치앙라이를 홍보하는 방안 등 양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1) 상호 교류협력방법 및 양의회 발전방향 모색





2)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활동



나. 치앙라이 야시장(Chiangrai night bazaar)

1) 소 개 치앙라이의 야시장은 화려하진 않지만 산만하지도 않다. 야시장의 상인들은 온화한 미소를 지을 뿐 소리치며 손님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테이블 수십 개가 놓인 광장은 시끌벅적하지 않고 도란도란하다. 고래고래 소리치며 술과 음식을 재촉하는 손님도, 정신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점원도 없다. 광장의 사람들은 무대 위 가수가 태국식으로 부르는 팝송 선율처럼 부드럽고 느긋하다. 천천히 얘기하고 천천히 움직인다.

야시장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먹거리·볼거리가 가득해 관광객이면 여행지에서 꼭 들르게 되는 곳이다. 치앙라이에서 만난 야시장 역시 태국 고유의 문화를 즐기려는 관광객과 치앙라이 사람들이 합쳐져 새로운 문화를 뿜어내고 있었다.

현재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고민하는 방법 가운데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과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야시장을 구상해 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초저녁부터 활성화 된 활기를 띄기 시작하는 치앙라이 야시장>

2) 야시장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야시장의 기원이 오래된 중국이나 대만 등 해외사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제 1호 야시장이 2011년에 개장될 정도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또한 최근 야시장의 성공적 사례가 소개된 이래로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적극적 후원에 힘입어 야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강릉 전통시장에도 야시장을 이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공적 야시장이 공유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야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전통시장과의 상생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 야시장은 공통적으로 비교적 훌륭한 요소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야시장은 대도지 인근 입지를 택하고 있거나, 주변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폭넓은 야시장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야시장의 고유경쟁요소인 볼거리/먹거리/살거리 등을 구비하고 있어서 기본적 경쟁요소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야시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생적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야시장이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요소로 인하여 전통시장과 야시장의 상생적 전략이 형성되지 못하면 훌륭한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 산업의지원 등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타 지역 야시장들도 전통시장과 야시장의 상생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인회 중심의 상생적 경쟁관계 설립이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국내 전통시장과 야시장의 상생 모델 예시



<화순고인들전통시장 내 야시장>



<보은전통시장 내 야시장>



<대구서문시장 내 야시장>



<울산중앙시장 내 큰애기야시장>

○ 강릉시 야시장 적합 모델 예시



<주문진 어시장 내>



<강릉 전통시장 내>

다. 치앙마이 왓롱쿤(백색사원) 방문 및 동계올림픽 홍보활동

- 동계올림픽 홍보 전단지과 홍보물품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릉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뜻한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은 올림픽은 알아도 동계올림픽에는 너무나 관심이 저조하였다. 강릉을 알리는 것은 둘째 치고 동계올림픽조차 모르는 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놀라게 되었다. 그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고 그 중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이해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이런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백색사원 전경>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라. 쌀감팽 민예마을 견학 및 동계올림픽 홍보

1) 민예마을과 예술창작인촌 비교

태국 최대의 수공예단지로, 치앙마이에서 4~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란나왕조의 장려로 예로부터 수공예품이 발달했던 치앙마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수공예 쇼핑거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길이만 13킬로미터에 이른다. 메인로드를 기준으로 하여 양옆에는 다양한 종류의 솜, 비단제품 및 보석, 가죽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 중 우리는 '버쌍'에 있는 우산마을을 관람하였다. 버쌍은 종이우산 공예로 유명하며, 마을 초입에 위치한 종이우산 제작 센터에서 제작과정을 견학하고 종이우산도 구입할 수 있다. 장인이 직접 그려 넣는 섬세한 무늬와 선명한 색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곳에서 생산된 우산은 태국은 물론 외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전통 종이우산수공예단지를 견학하면서 느낀 점은 강릉예술창작인촌과의 연관성이었다. 완성된 제품을 사람들에게서 많이 알리고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에게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작자들이 얼마나 정성과 열정을 들여 만들어 내는지를 보

게 된다면 그들은 수공예품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릉예술창작인촌과 잘 연관시킨다면 우리 강릉예술창작인촌을 ‘마을(村)’이 아닌 ‘단지’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2) 강릉예술창작인촌 발전방향

가) 현 재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지원하는 2015년 지역 공예마을 육성공모사업에 강릉예술창작인촌을 중심으로 하는 ‘강릉 오죽헌 공방 마을 육성사업’을 제출, 국비를 지원 받아 강릉예술창작인촌을 조성하였다.



주변에 강릉시 농악전수관이 들어서고 2016년에는 오죽헌 한옥마을이 준공되면서 이 곳은 복합 관광단지로 발전,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강릉예술창작인촌만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벅차다는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아직까지는 체험형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머물면서 체험하고, 관람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이 곳에 매력에 빠질 시간이 필요한 데, 잠시 들렀다가 떠나기 바쁜 곳이 되어 버렸다. 전주한옥마을, 인사동, 태국의 싹캄팡 수공예단지처럼 먹거리촌과 판매점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체류하는 시간이 생길 것이고, 소비가 발생할 것이며, 그 소비가 예술창작인촌의 발전과도 연결될 것이다.

○ 강릉예술창작인촌 발전방향 검토를 위한 비교 견학



<태국 최대 수공예단지 싼캄팡 견학>

○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개최도시 강릉 홍보



○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개최도시 강릉 홍보



5. 방문 소감

‘강릉시 국제우호도시’라는 설명만으로는 치앙라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산림이 울창하며, 빼어난 사원들이 즐비하다는 책자의 소개만이 우리가 아는 전부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이 바로 치앙라이를 좀 더 깊고 진솔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외면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겪어보아야 한다는 것처럼, 직접 겪어 본 치앙라이는 여행 책자의 소개와는 별개로 친절하고 따뜻하며 진심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걱정하고 기원해 주는 ‘진정한 우호도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공통점이 많아서일지도 모르겠다. 그 중 한가지가 관광산업의 발달이다. 특히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며 이용하여 관광사업을 이어간다는 점, 태국만의 특색 있는 관광사업과 외지인에 대해 경계심 없이 미소로 응대하며 맞아주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그런 점을 2018평창동계올림

픽이라는 큰 행사를 앞 둔 강릉이 고민하고 배워야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친근함과는 별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라는 관점에서는 어려운 점도 많았다. 단순하게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중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체를 알려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올림픽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고 먼나라 이야기였으며, 관심 밖의 이야기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빙상경기가 어디에서 개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강릉에만 있었다면 모를 이야기였다. 직접 해외에서 홍보활동을 해보아야지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앞둔 우리 강릉시의 홍보활동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고민해보고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하는지 파악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끝.